

뉴스 초점 亞문화전당 예술감독 선정 반발 왜?

“전당 부분개관 논란 부른 장본인” 불통 문화부의 일방추진도 한몫

광주지역 문화단체들 위촉 철회 촉구

광주지역 문화 관련 단체들이 이영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전시에 예술감독의 위촉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지역 문화계에서 특정 인사의 인선을 문제삼은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와 지역문화교류재단, 광주전남문화연대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영철 전 아시아문화개발위원장의 문화전당 전시에 예술감독 위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자는 “이 전 아시아문화개발위원장이 지난 1년 3개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전당 콘텐츠의 구체화’를 담당하는 자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랜드마크·옛 도청

표출이기도 하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당사자인 광주지역을 철저히 무시한 측면이 있었다”며 “예술감독 인선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지역과 지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예술감독 철회 촉구 사태’는 쉬지 않을 것 같다.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와 지역문화교류재단 등은 이전 원장과 함께 예술감독(공연)으로 위촉된 김성희 계원예술대 교수까지 검증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자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출한 김 예술감독에 대한 검증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다. 이전 원장에 대한 문화부의 처리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포문을 열어놓은 것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광주일보에 이영철 예술감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김성희 예술감독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북당국회담 무산

수석대표 합의 못해...北 대표단 파견 보류 일방 통보 남북 연락관 철수...정부 “대화의 문 열려 있다”

남북 양측이 11일 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대립하던 끝에 타협에 실패,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담이 무산됐다. <관련기사 5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회담 무산 사실을 밝혔다.

우리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선정해 통보했다.

양측은 이날 낮 1시에 관문점 연락관을 통해 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이후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수석대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 양측간 대화 협의가 계속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양측 모두 원대 제시한 수석대표를 고수하며 수정 제의를 하지 않으면서 맞서 12일 회담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9일부터 10일까지 실무접촉 이후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 당장 명단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북측은 명단의 동시교환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은 우리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호적이고 실무접촉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북측 대표단 파견 보류하면서 무산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예정된 남북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하는 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회담은 무산에 따라 남북 연락관이 철수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대 연습도 헛되이 11일 오후 남북당국회담이 예정됐던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호텔에서 호텔 관계자들이 한대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전두환 추징금, 과거정부 뭐했나”

“새 정부서 의지 갖고 해결”...원전비리 척결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과 원전 비리 관련, ‘과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2·3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려운 사정의 국민이 작은 세금도 정직하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전 정권 비판

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들 두 사안을 앞세워 새 정부에 공세를 취한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제기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관련 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한다”며 새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 “박 대통령과 새내리당에 ‘전두환 추징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두 사안 모두 과거 민주당 집권시에도 ‘진행됐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박 대통령 비판의 요지라는 것이 청와대 측 기류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천명, 역대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민예총과 광주전남문화연대 관계자들이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제58회 호남예술제 작문·미술·만화·일러스트 입상자 ▶12·13면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월호

기획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메이드인 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커버스토리

세계미술관 기행
축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화역사기행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흩날린 백제의 생명들

문화동행, 편편 클럽
광주전남별사랑
밤하늘 보면 행복해지는 이들의 ‘별’ 이야기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당신의 아웃도어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력”

영화감독으로 ‘인생 3막’ 올린 영화인 김동호의 꿈과 삶

스페셜 인터뷰

건축가 승효상

비움으로 가득 채운 사유의 건축

이달의 작가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에명이 만난 이사람
KIA타이거즈 팬들의 비타민 응원단장 김주일이 말하는 “이것이 스포츠 엔돌핀”

‘꽃반지 끼고’의 가수, 은희 그녀가 ‘갈웃’에 빠진 사연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